

주님의 사랑

Francine Gilkow, OFS

언젠가 사제가 내게 질문했습니다:

-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 주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 주님이 당신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께 질문합니다:

-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은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 무엇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합니까?
-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나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볼티모어 교리문답서를 암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느님은 왜 너를 만드셨는가?” 답: “하느님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교회에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교리문답의 대답에는 나에 대한 주님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였으며 나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교리문답서의 말대로)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톨릭 소녀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특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나에게 특별히 주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게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책에서 읽은 지식만 있었지 개인적인 경험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십 대에 들어서면서 가정 문제로 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상처, 포부, 가족에 대한 나의 희생 등을 그분과 나누었는데, 그분(내가 배운 하느님의 모습)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영적 위기였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미지의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그 누구 혹은 무엇에게 부르짖던 이 고통의 시간은 나에게 침묵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 존재는 나를 위로해 주었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존재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학교에서 배운 하느님의 모습은 나의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을 안고 있는, 혹은 어린이들과 앉아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때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붙잡아 준 것은 그 존재감이었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갈망하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존재감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환자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리고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사도직을 떠나 묵상의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도가 메마르다고 불평합니다. 전에는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 무의미한 것 같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메마른 기도는 예상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더 그리워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아가”에 나오는 신부와 그의 연인에 대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에서 그리움이 채워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의 연인이여, 서두르세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되어
발삼 산 위로 서둘러 오세요.” (아가 8,14)

이 갈망 속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내가 천당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는 이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 나의 주님은 정말로 욕심 많은 연인입니다.